청년불자 양성에 거제불교 동참

대우불교청년회, 대한불교청년회에 후원금 전달

창립 39주년 특별법회 봉행
청소년 포교 방안 모색 나서
대불청 만해센터 건립불사에
지역불자 십시일반 뜻 모아

성낙두 경남지사장

경남 거제 재가자들의 청년 신행을 이끌고 있는 대우불교청년회가 창립 39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만해문화센터 건립기금을 전달하고 발전을 기원했으며, 청년불교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의논하는 장으로 회향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 울산경남지구 대우불교청년회(회장 김관우)는 창립 제39주년 기념 법회를 2월 12일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위치한 거제불교회관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법회에는 하재길 대한불교청년회장, 김관우 대우불교청년회장, 윤종국 대의원의장, 한정인 사무총장, 강인식 울산 · 경남지구 회장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동참했다. 창립 39주년 기념법회는 원빈 스님 초청 시민법회를 기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동참하며 행사를 취소하고 조촐히 진행됐다.

행사는 1부에서 '청년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기약하는 영상'을 시청했으며, 2부에서는 '청년 불교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및 청년 포교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모색했다. 아울러 청소년 및 20대 청년 불자를 위한 사업 방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하재길 대한불교청년회장은 "현재 계층 포교를 위한 청소년 공식 활동은 만해백일장이 있으며, 만해센터 건립 후에는 젊은 불자 양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우 대우불교청년회장은 "청소년 불자 인재 양성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활동이 필요하다. 지역에는 수도권보다 젊은 불자가 더 부족하다"며 "학업에 몰입돼 있는 청소년들이 종교 활동에 참여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김관우 회장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쉬움은 남지만 내년 40주년을 더욱 알차게 준비하고 신심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 울산경남지구 대우불교청년회는 창립 제39주년 기념법회를 2월 12일 거제불교회관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대우불교청년회는 대한불교청년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만해평화센터 건립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건립기금은 지회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회비와 활동 후원금, 보시금으로 마련됐다.

하재길 대한불교청년회장은 "다가올 2020년 6월 20일에는 청년회 창립 100주년을 맞는다"며 "100주년을 맞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수행 포교 공간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참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대우불교청년회는 거제도 대우 조선에 입사한 청년불자들이 신행과 포교를 위해 창립한 단체다. 매주 정기법회와 금강경 독송, 명상 수행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자비나눔을 위한 무료급식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동지에는 쌀이나 물품을 후원받아 중증장애인 시설 반야원에 전달하고 있다.

정여 스님 동안거 회향 특별법회

부산 여여선원서, "늘 깨어서 자신을 보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여여선원이 특별법회를 개최했다. 선원장 정여 스님의 동안거 회향을 맞아 대중이 모여 설법을 청해 마련된 자리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여여선원(선원장 정여)은 2월 13일 경내 법당에서 '늘 깨어서 자신을 보라'라는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특별법회는 선원장 정여 스님의 동안거 원만 회향을 축하하며 법을 청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법회에는 기장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 동래구불교연합회장 효문 스님, 금어사 주지 월강 스님, 기장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



정여 스님은 법문에서 '늘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며 연꽃 같이 청정한 마음으로 선정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하루 30분만이라도 자신을 바라보고 수행을 한다면 삶이 순수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며 "본래 성품을 깨닫고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계에도 동요하지 않는 연꽃 같은 청정한 마음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 '전등율맥' 전수

혜림 · 무일 · 인법 스님 등 전계 제자 8명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관음사 회주)은 2월 14일 부산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전등율맥 전수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지현 스님은 혜림 · 무일 · 인법 · 인석 · 성천 · 지성 · 용희 · 법인 스님 등 8명의 전계 제자에게 계맥을 전수했다.



지현 스님은 "오직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 그 진리를 우리가 잇는다는 마음으로 정진하길 바란다"며 "8명의 스님들을 통해 새롭게 불법이 살아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계율사 지현 스님은 해인사에서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2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1977년 쌍계사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은사인 보성 스님을 이어 율사의 맥을 잇고 있으며 현재 송광사 율주다. 스님은 조계종 계단위원, 조계종 단일계단 존증사 등을 맡고 있다.

"신도 교육은 불교 미래" 밀양불교대학 16기 졸업

밀양불교대학(학장 정무)은 2월 15일 밀양 용궁사 극락보전에서 제16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졸업식에는 학장 정무 스님과 이병희 경남도의원, 허홍 밀양시의원, 경남지역 포교사 및 관내 신행단체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졸업식은 축하연주에 이어 삼귀의 및 반야심경, 내빈소개, 학사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졸업장및 부동품계증 · 표창장 수여가 진행됐으며 회고사 및 축사 순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조계종 포교원장 표창장은 신익기 16기 회장이 수상했다.

학장 정무 스님은 "'신도 교육은 불교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불교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졸업식에 동참해준 사부대중에게 감사하다"며 "졸업생들의 신심과 원력이 불국토 건설에 초석이 되고, 각자의 재적사찰에서 전법수행해 한국불교의 희망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군 호국사 "불자생도 최다 배출"

제74기 졸업 · 임관 축하
올해 불자생도 55명 졸업

해군사관학교 호국사가 생도들의 졸업과 임관을 축하하는 법회를 열고, 자비와 이타행으로 모범을 보인 사관생도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사관학교 호국사(주지 만소)는 2월 19일 '제74기 졸업 및 임관 축하법회'를 봉행했다. 호국사는 6년 연속 불자생도를 가장 많이 배출한 포교도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회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해군사관학교 호국사가 주최했으며, 소위 임관을 앞둔 생도들을 축하하고 재학생들을 격려하며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법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외부인사 초청 없이 사관생도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임관 축하법회는 표창장 수여, 선물 전달식, 호국사 주지 만소 스님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호국사 주지 만소 스님과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는 불자생도들.

표창장은 사관학교 재학 중 자리이타행을 실천하며 불자생도회 화합에 기여한 생도들에게 수여됐다.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혜명 이선우 생도, 조계종 포교원장상은 정행 배정우 생도, 군종특별교구장상은 정화 강선재 생도, 성해 강성수 생도가 각각 수상했다. 이후 진해사암연합회는 임관을 축하하며 마련한 선물을 졸업생들에게 전달했다.

호국사 주지 만소 스님은 "졸업 후에도 불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각자의 원력을 실천하길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한편 해군사관학교는 올해 졸업생 가운데 55명의 불자생도를 배출, 6년 연속 가장 많은 불자 생도를 배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예비초등생 학교생활 응원"

구례 다문화가족센터, 14명에 책가방 전달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례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도운)는 2월 13일 구례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2020년 예비초등학생 책가방 및 선재의 입학선물 전달식'을 열고,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예비초등학생 14명에게 책가방과 수업에 사용할 6종류의 악기를 전달했다.<사진> 전달식에는 화엄사 총무 관문 스님, 도운 스님을 비롯해 1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했다.



이날 전달한 입학선물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서 지원한 책가방을 비롯해 지리산 화엄사와 지역 후원자가 마련한 악기(리듬악기, 멜로디혼, 실로폰, 리코더, 단소, 소고)가 담겼다.

입학 선물을 받은 홍민 군의 아버지는 "너무나 감사하다. 둘째 아이가 학업에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교육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23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2020학년도 불교의식(범음, 범패)교육원 신입생 모집

본원은 불교 전통의식인 영산재(범음, 범패)를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받았으며 영산재를 계승 및 발전 유지하고 후진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불교 문화재이자 민족의 빛난 문화유산인 불교전통의식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불교의 각종의식의 중요성을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배우실 기회를 놓치신 스님들께서는 종단을 초월하여 승려 양성에 목적을 두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아오니 스님들께서는 수희동참으로 만학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졸업자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23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자격 부여 ※

수료 과정 및 강주							
모집반		교육내용	강 주	요 일	시 간	모집조건	교육기간
1학년	1학기	기본 이론 및 예불, 각종 사물 다루는 법	혜령스님 호산스님 월인스님	목	오후2시 ~오후6시	모든종단 승려	1년과정
	2학기	각단불공 및 시식					
2학년	1학기	범음범패, 바라작법, 나비작법등 고급과정	혜령스님 호산스님 월인스님	금	오후2시 ~오후6시	초급반 이수자	1년과정
	2학기	실전대비 의식진행 전문과정					

◈응시자격
- 입 학 : 모든 종단의 승려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의 소정양식)……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장
- 전형일정 : 2020년 2월 ~ 3월말까지(접수가능)
- 개 강 일 : 2020년 3월 19일(목요일)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 53(금호동)
- 입학문의 : 법륜사 종무소 062-655-7444, 010-6650-7444
  보존회 사무처장(법진스님) 010-9606-3981
  연구원 교학처장(명휴스님) 010-7941-0017

2020년 2월

(사)광주전통불교 영산재 보존회